

野 장외투쟁 나서나... “與 이런 식이면 국민과 투쟁할 수밖에”

주호영 “폭정 일삼고 불통인 대통령 처음 경험” “라임, 옵티머스 사건 특검 하지 않으면 안돼” “文대통령 시정연설, 강하게 항의할 방법 찾자”

국민의힘은 28일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릴레이 규탄대회를 이어가며 불가피할 경우 장외투쟁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한다면 우리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결의를 점점 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렇게 폭정을 일삼는 정권, 국민과 불통인 대통령을 저

는 처음 경험한다”며 “모든 부분이 비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174석의 민주당의 힘과 수사기관을 장악한 힘으로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모든 수단 동원해 권력 지키려 해도 권력부정과 비리는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특검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다.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특검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면 레임덕으로 바로가고 내년 4월 서울 부산 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의식의 힘으로 거부하는 듯하다”며 “108석밖에 없는 저희는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관찰할 방법이 없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이 거부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국정이 난맥상 보이고 폭정으로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 항의할 방법을 찾아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 추천위원을 향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공수처장이 독립적, 중립적 인지만 보는 추천위원까지 공격하는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천권까지 뺏겠다는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 의원은 규탄발언을 통해 “우리 당과 검찰이 항응을 제공 받았는데 그럼 김봉현과 같이 해외여행을 같이 간 민주당 의원들은 김봉현 똥마니인가”라며 “김봉현한테 수천만원을 받은 이상호는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와 금감원의 로비 의혹 문건이 발견됐는데 검찰총장에게 보고 안하고 묵살을 문건 게 이상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며 “이건 라임 김봉현과 추미애 장관이 원범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을 문개는 자, 그리고 특검을 방해하는 자, 공수처 설치로 시간 벌려는 자들이 바로 옵티머스 라임 사기 사건의 주범”이라고 외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 시작에 앞서 “국민의 요구 특검법 당장 수용하라” “특검법 거부하는 민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라임·옵티머스 특검 결의대회에서 “특검으로 진실규명! 라임옵티머스 특검 당장수용하라!” 등을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은 각성하라” “특검으로 진실규명 치기도 했다. 대통령은 수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민주당 “무조건 11월 공수처 출범”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 일축 “공수처가 하면 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늦어도 11월까지 인사청문회도 다 마치고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를 끝내야 된다”고 쏘아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100일이 넘는 위법사실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수처법 시행일 7월15일이 한참 지난 것을 상기시킨 뒤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국회 의장님의 소집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회기가 열려야 된다”며 “주말부터라도 공수처장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타 임라인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에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협상이나 담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공수처 출범 그 자체에 충실해야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 맡겨놓(아야 한다)”며 “혹시나 검찰의 문제라든지 국회의원의 문제라든지 금융당국의 고위공직자의 문제에 있어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구성된 공수처가 그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으면 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하기 전에 공수처장 추천에 협조하면 당연히 우리는 함의로 공수처장 임명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런데 벌써부터 본인들이 장외투쟁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정략적이다.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려고 그러면 장외투쟁을 벌써 예고하는 것이나,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 와서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文대통령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 출발점...위기 극복 노력”

“방역체계 빈틈없이 유지...경제도 확실한 반등”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적극적인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등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에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의 동력을 경제 성장에서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 없을 것”이라며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분기 플러스로 돌아선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 크다”면서 “3분기에 만들어진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 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기업의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벤처 분야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동취재본부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